숭례문 복원 구경 오세요

20일 오후 숭례문 복구현장을 찾은 한 시민이 복원중인 숭례문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숭례문 복구현장은 2012년 숭례문 복구 완료시까지 매주 주말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된다. /연합뉴스

외국어고 한 곳 없는 광주, 수능 고득점 비결

명문고 만들기 경쟁 '강한 學力' 키웠다

공교육 활성화·교육환경 개선도 한몫

'실력 광주'의 저력이 또 한번 입증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외국어고가 없고, 과학고 외엔 특목고나 자사고 등 우수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단 한곳도 없는 광주에서 수능 고득점자가 다수 배출된 것이다. 그 비결을 살펴봤다.

◇공교육 활성화로 승부=타 시·도에 비해 경제 기반이 취약한 광주는 교육비 지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다. 따라서 공교육의 활성화 외엔 학생들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07년 이후 '공교육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공교육 살리기 정책 중 백미(白眉)는 '빛고을 학력 신장 프로젝트'다. 부진학생 제로화 운동, 수준별 맞춤 수업, 독서·논술·토론·토의 교육 강화, 영어교사의 원어민화 등이 핵심이다.

◇실력 광주 주춧돌 '학교 현대화'=시교육청은 올해 초·중·고 217개교에 모두 651억원을 들여 현대식 냉·난방 시설을 설치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학교 현대화 사업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도 폭발적이다. 경신여고 남동우 교장은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에어컨을 천정형으로 바꾼 뒤 학생들의 교육열도 급상승했다"면서 "학생은 물론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의 만족도도 대단하다"고 말했다.

◇학교간 선의의 경쟁도 한몫=이번 수능 고득점자 비율 지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광주 서구와 남구는 매년 20위권 내에 진입하는 등 이미 '교육 명문' 지역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광주 북구도 2005년 이후 심심찮게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바로 사립고교(전체 65개 고교 중 사립고교는 42개교)간 선의의 경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광주의 고교 입시는 선(先) 복수지원 후(後)추첨 방식으로, 학교별 정원의 40%는 응시자가 지망한 1순위 지원학교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고교의 성적이 나쁠 경우 우수 예비 고교생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고, 결국 '나쁜 학교'로 낙인 찍히게 된다. 일선 고교들이 실력향상에 올인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남구에서는 대광·대성·동아·수피아여고 등 4대 전통 사립여고가, 서구에선 서석·광덕·대동고 등이, 북구에선 고려·금호·동신고, 경신·중앙여고 등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최근 5년간 언어 1~2등급 비율 상위 지역

	2005	2006	2007	2008	2009
1	연제구	연제구	연제구	횡성군	가평군
2	공주시	과천시	공주시	연제구	동두천시
3	도봉구	공주시	횡성군	과천시	과천시
4	과천시	거창군	과천시	공주시	공주시
5	해운대구	해운대구	의왕시	의왕시	의왕시
6	수성구	횡성군	거창군	수서구	연제구
7	수영구	수성구	수성구	강남구	횡성군
8	거창군	강남구	해운대구	해운대구	김포시
9	광주 서구	춘천시	강남구	서초구	강남구
10	나주시	전주시	강릉시	제주시	수성구
11	광주 남구	도봉구	전주시	전주시	서초구
12	강남구	광주 서구	서초구	춘천시	거창군
13	강서구	서초구	원주시	동두천시	전주시
14	춘천시	강릉시	제주시	광주 남구	원주시
15	횡성군	유성구	도봉구	강동구	광주 남구
16	대전 서구	순천시	광명시	대전 서구	광명시
17	강릉시	대전 서구	광주 남구	광주 서구	해운대구
18	원주시	경주시	강서구	강서구	광주 서구
19	광명시	광명시	광진구	담양군	강동구
20	강동구	수영구	대전 서구	수영구	성북구
특목고/자사고/기숙형 자율고 없는지역	강남·수영·광주 서구·광명	강남 서초·광주 서구·강릉·순천·광명·부산 수영	강남·강릉·서초·광명	강남·서초·광주 서구·부산 수영	강남·서초·광주 서구·광명

■최근 5년간 외국어 1~2등급 비율 상위 지역

	2005	2006	2007	2008	2009
1	연제구	연제구	연제구	연제구	가평군
2	강남구	과천시	과천시	횡성군	과천시
3	과천시	횡성군	횡성군	과천시	연제구
4	공주시	거창군	공주시	의왕시	동두천시
5	도봉구	강남구	의왕시	강남구	횡성군
6	수성구	수성구	강남구	서초구	의왕시
7	서초구	해운대구	수성구	공주시	강남구
8	거창군	서초구	서초구	해운대구	공주시
9	횡성군	공주시	거창군	수성구	서초구
10	해운대구	도봉구	해운대구	동두천시	김포시
11	나주시	강릉시	강릉시	강동구	수성구
12	광주 서구	전주시	광진구	거창군	해운대구
13	유성구	유성구	전주시	광주 남구	거창군
14	강릉시	대전 서구	도봉구	양천구	서울 중구
15	수영구	강동구	유성구	대전 서구	유성구
16	광주 남구	광주 서구	대전 서구	광진구	광진구
17	대전 서구	광진구	강서구	강서구	양천구
18	강동구	강서구	광주 남구	유성구	성북구
19	원주시	경주시	나주시	송파구	강동구
20	광진구	광주 남구	포항시	성북구	강서구
특목고/자사고/기숙형 자율고 없는지역	강남·서초·광주 서구·강릉·부산 수영	강남·서초·강릉·광주 서구	강남·서초·강릉	강남·서초·양천·송파	강남·서초·양천

31만원 vs 4만원

소득 상·하위 20% 2분기 학원비差 8배

운동·오락 지출도 6배差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 교육·운동·자동차·외모 등에 상대적으로 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의 명목 교육비 지출액은 10조297억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의 9조8천236억원보다 2.1%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증가율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낮다.

2분기 기준으로 교육비 지출액 증가율은 2005년 8.6%, 2006년 10.6%, 2007년 8.9%, 2008년 8.8% 등이었으나 올해 2분기에는 불경기 등으로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소득에 따라 전국 가구를 5개 분위로 나눈 결과, 고소득층들은 여전히 교육비 지출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학생 학원교육비는 지난 2분기에 월평균 31만2천535원으로 1년전인 작년 같은 분기의 28만4천378원에 비해 9.9% 늘었다. 반면, 소득하위 20%인 1분위의 같은 항목은 4만5천539원에서 4만1천37원으로 9.9% 줄었다.

이에 따라 5분위 학생 학원비를 1분위로 나눈 배율은 7.6배로, 2분기 기준으로는 관련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이 배율은 2분기 기준으로 2003년 5.8배, 2004년 6.4배, 2005년 7.3배, 2006년 7.1배, 2007년 5.2배, 2008년 6.2배였다.

서적 지출비는 5분위가 지난 2분기중 월평균 3만2천741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의 2만6천700원보다 22.6% 늘었는데 비해 1분위는 7천292원에서 6천264원으로 14.1% 줄었다. 이에 따라 서적지출 배율은 5.2배로 1년전의 3.7배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고소득자들은 운동·오락, 웰빙음식 등에도 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분기중 5분위 가구의 운동·오락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월평균 2만7천595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의 2만6천410원에 비해 4.5% 늘었다. 반면 1분위는 5천40원에서 4천442원으로 11.9% 줄었다. 이에 따라 운동.오락서비스 지출액의 격차는 5.2배에서 6.2배로 크게 확대됐다.

5분위 가구의 과일 및 과일가공품에 대한 지출은 월평균 4만8천738원으로 1분위의 1만9천758원에 비해서는 2.5배를 나타냈다. 그러나 담배는 1분위 1만4천582원, 5분위 1만7천849원으로 1.2배에 머물렀다.

부자들은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 및 장신구에서는 5분위가 6천282원, 1분위가 1천64원으로 5.9배의 격차를 보였다. 이미용 서비스에서도 2.5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연합뉴스

"공무원 노조 민주노총 가입 부적절"

정부 "정치적 중립 위반…엄정 대처 하겠다"

정부는 20일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관회의를 열고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노조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강령으로 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되면 향후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나 정치투쟁에 참여하게 돼,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울러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민주노총 예산(86억 원)의 20%를 부담하게 되는 것도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한승수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공무원노조가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려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며 "통합을 빌미로 근무 시간과 장소를 활용하고 투표와 관련된 노조활동과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3개 공무원노조는 21~22일 단일 노조로 통합하는 안건과 민주노총 산하노조로 가입하는 안건을 놓고 투표를 실시하며, 통합 안건은 투표자 3분의2가, 민주노총 가입은 절반 이상이 찬성하며 통과된다.

세 노조가 합쳐지면 조합원 11만5천 명의 통합 공무원노조가 탄생하며,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금속노조(14만7천 명), 공공노조(14만2천 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민주노총 산하연맹이 된다. /연합뉴스